

국정뉴스



문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골목상권 르네상스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4일 청와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전국 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 모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4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1차관, 신동의 주오스트리아 대사,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한은 오스트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방한이자, 양자 차원에서는 최초 방한이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42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군에 대한 애군심이 필요하다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미국을 지탱하는 중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Out of many, one), 자유(Liberty)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In God we trust)이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는 미국 특유의 구성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기에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의 ‘미국인’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개념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인 만큼 경건한 신앙생활과 근검절약 정신 그리고 금

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으나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와 비교해서 좀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이 혼합되고 미국의 짧은 건국의 역사에서 연속된 전쟁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애국심과 애군심(愛軍心)이 싹텄다고 본다. 미국의 공향에는 미군들을 위한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 미국위문협회의) 휴게실이 있다. 휴게실 공간을 제공해주고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휴게실에 가면 TV를 비롯해서 안락한 의자가 있고, 스낵류, 커피, 음료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모두 일반인들이 기부한 것으로 현역 군인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어느 곳을 가나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다. 그리고 상이군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다. 심지어는 주유소의 주유기에 “우리 군인

들을 존경하고 사랑합시다”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비친다. 군 복무를 고귀하고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15년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사회 전반의 존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군에 대한 사기증진 필요해

군복무 존중하는 분위기 돼야

미국은 1972년 이후부터 징병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민의 4%만이 군인을 하고 있거나 군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다. 한 가지 문제는 미국 청년 네 명 중 한 명만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정신적 체력적 자질을 갖고 있어 국가적 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공익근무를 제기하는 사회 지도층

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미국의 최근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미육군이 2018년도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시사점이자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미국 국민들의 미군에 대한 사랑이다. 이는 미군을 거쳐 간 사람들이 군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과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 군인들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군인들을 존중하고 예우해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가 젊은 청년들에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군복무자들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